

청소년 독자의 인터넷 독서 전략에 관한 문헌 연구*

조병영**

<차 례>

- I. 서론
- II. 인터넷 독서 환경과 독서 능력
- III. 인쇄 글 독서와 인터넷 독서의 관계
- IV. 인터넷 환경에서의 구성적-반응적 독서 전략
- V. 청소년 독자의 구성적-반응적 인터넷 독서 전략 사용
- VI. 시사점 및 결론

I. 서론

요즘 청소년들을 흔히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s)’이라고 부른다(Palfrey & Gasser, 2008). 이들은 인터넷이라는 정보 매체가 대중적으로 쓰이는 시대에 나고 자란 세대이다. 한국과 같이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인터넷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고 사용 저변이 확대되어 있는 환경에서는(한국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진흥원, 2011), 인터넷을 빼놓고서 청소년들의 언어 및 의사소통 생활을 설명하기 어렵다. 한 예로, 독서 능력과 관련하여 최근에 발표된 국제학업성취도평가인 PISA의 결과(OECD, 2011)는 한국 청

* 이 글은 2010년 미국교육연구학회(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의 연례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 Iowa State University, 조교수(choby@iastate.edu)

소년들의 ‘디지털 읽기’능력이 단연 월등함을 잘 보여준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의 (또는 세계의) 청소년들이 실제로 전략적이고 비판적인 방식으로 인터넷의 글들을 찾고, 선택하고, 또 그 가치를 따져 자신의 삶과 공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단지 인터넷을 많이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정교하고 비판적인 독서 능력이 저절로 함양되는지도 알 수 없다. 사실, PISA의 인터넷 독서 평가 문항은, 매우 제한된 범위의 하이퍼텍스트에서 사실적 정보를 검색하여 주어진 질문에 답하는 피상적 독해 능력에 치중한다. 그래서 이 시험의 결과를 인터넷이 요구하는 독서의 모든 능력으로 일반화하여 받아들이기 힘들다. 실제 청소년들이 인터넷이라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광대한 정보 공간 안에서 어떻게 독서를 하는지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이해할 필요가 대두되는데, 이는 인터넷 세대들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독서 교육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작업일 것이다(Coiro, Knobel, Lankshear, & Leu, 2009).

정보를 비판적으로 선택, 이해, 평가하는 능력은, 인터넷을 위시한 전자 매체를 기반으로 하여 빠르고 폭넓게 진화하는 지식 중심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핵심 역량이라 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변화하는 독서 환경과 독서 과제는, 보다 복잡하고 정교한 독서 능력 — 인쇄 매체 환경의 그것과 완전히 다르지는 않더라도 — 을 독자들에게 요구한다(Lankshear & Knobel, 2003 ; Leu, Kinzer, Coiro, & Cammack, 2004 : New London Group, 1996). 따라서 21세기 독자를 키우기 위한 효율적인 독서 교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식 정보 중심의 전자 매체 시대가 요구하는 능력이 무엇인지에 관한 정치한 이해가 필수적인 것이다(Alvermann, 2001).

다행히도 최근의 독서 연구는 인터넷에서의 독서 과정에 관하여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한다. 또한, 교육심리학, 교육공학, 문헌정보학과 같은 인접 분야에서도 전자 매체 환경에서 요구되는 독서 전략을 직간접적으로 조사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의 성과를 종합 정리하여 변화하는 독서 현상의 개념과 실제에 관한 응집된 이해를 도모하는 것은,

21세기의 보다 효과적인 교육 행위의 구상과 실행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Snow, 2002).

이 글은 인터넷 독서 과정에 대한 이해, 특히 청소년 독자들이 인터넷에서 글을 찾아 읽고 공부할 때에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에 관하여 고찰한 기초 문헌 연구의 결과를 보고한다. 이 글은 전자 매체 기반의 문식 환경에서 요구되는 능력 중에서 특히 ‘독서 전략의 유형과 사용’에 특별히 주목한다. 이 글은 먼저 인터넷 독서 환경의 주요 특징을 짚어 보고, 인터넷 환경에서의 독서 과정이 전통적 인쇄 글 읽기의 과정과 어떤 관련을 갖는지 논의한다. 그리고 독서 과정에 관한 연구 성과 위에 제안된 ‘구성적-반응적 독서(constructively responsive reading)’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설명한다(Afflerbach & Cho, 2008 ; Pressley & Afflerbach, 1995). 이 모형을 사용하여 인터넷 독자들(특히, 청소년 독자들)의 독서 과정과 독서 전략의 사용 양상을 조사한 연구들의 결과를 정리한다.

이 글에서 인용하고 분석한 연구들은 대부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권에서 출판된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독서 전략에 관한 일반적 이해의 수준 이상으로, 한국의 인터넷 독서 환경, 한국 독자(특히, 학생 독자)들의 독서 과정의 특수성에 관하여 온전히 설명하기에는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 문헌 연구가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 읽고 공부할 때에 어떤 독서 전략들이 요구되는지에 관하여 이론적 수준에서 개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미진하지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II. 인터넷 독서 환경과 독서 능력

많은 정보들이 여전히 문자 언어로 전달된다는 점에서, 인터넷 독서 환경은 책이나 잡지와 같은 인쇄 매체의 환경과 많은 특징을 공유한다. 그러나 수없이 많은 서버와 단말기로 연결된 글로벌 정보 네트워크로서의 인터넷 독서 환경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인쇄 매체 중심의 독서 환경과 차

이를 보이기도 하는데, 새로운 환경에서 요구되는 독서의 개념과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러한 차이점들에 각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김요한, 2003 ; 나일주, 진선희, 2008 ; 노병성, 2008 ; 배식한, 2000 ; 조병영, 2007 ; Balter, 1998 ; Charney, 1987 ; Coiro, 2003 ; Landow, 1992 ; Spiro & Jehng, 1990).

인터넷의 정보들은 하이퍼텍스트 형태로 소통된다. 책이나 신문 기사를 읽을 때 그 글의 저자가 정의한 정보의 구조와 배열 순서에 상당한 정도로 의존하는 선형적(linear) 독서와는 달리, 인터넷 하이퍼텍스트 공간에서 독자는 자신이 원하는 순서로 필요한 링크를 선택하고 이에 연결된 웹 페이지에 접속하여 정보를 읽는 비선형적(nonlinear) 독서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Alexander, Kulikowich, & Jeron, 1994 ; Charney, 1987 ; Spiro & Jehng, 1990). 물론, 인쇄 매체 읽기에서도 비선형적 독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신문을 읽을 때에 각 지면 기사들의 표제어를 보고 특정 기사를 골라 읽는 것이나, 요리책을 읽기 전에 책의 차례나 색인을 통해서 만들고 싶은 음식의 조리법을 선택해서 읽는 것, 역사 서적을 읽을 때에 관련 각주를 놓치지 않고 읽는 것은 모두 독자가 자신의 글 읽기의 순서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비선형적이고 하이퍼텍스트적인 독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수많은 웹 페이지들이 링크를 통해서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전자 하이퍼텍스트 상에서는 비선형적 읽기의 빈도가 증가하고 그 복잡성의 정도도 심화될 것이다(Balter, 1998). 이러한 인터넷 정보 구조의 비선형성은 독자에게 스스로 원하는 정보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자율성’을 허락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정보 공간 안에서 자신의 독서 행위를 매우 면밀하게 조절하고 점검해야 할 ‘책무’를 부여하기도 한다(조병영, 2007).

인터넷의 하이퍼텍스트는 또한 매우 ‘개방적’이라는 특징을 갖는데, 이는 인터넷상의 급속한 정보 팽창을 촉진한다. 인터넷은 방대한 정보를 매개하며 빠른 속도로 변화한다. 거의 매일 셀 수 없이 많은 웹페이지들이 이 열린 공간에서 새로 만들어지고 또 사멸하면서,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하이퍼텍스트는 포괄적 수준에서 그리고 지역적 수준에서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러면서 수많은 정보들 간의 관계성을 명확히 정의하기 힘든 독서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환경에서 인터넷 독자는,

‘과잉 정보’가 잠재적으로 유발할 수 있는 ‘인지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소기의 글 읽기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보다 적극적인 필요가 있다(Kuiper, Volman, & Terwel, 2004). 동시에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정작 찾고자 하는 정보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는 ‘정보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 순간 순간의 독서 상황에 맞는 정보 검색 및 정보 이해 전략들을 의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물리적으로 구조화된 인터넷 하이퍼텍스트 공간은 독자로 하여금 인지적, 의미론적 측면에서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에 충실한 독서 능력을 요구한다. 인터넷 하이퍼텍스트 공간은 기본적으로 상호텍스트성의 공간이다(Landow, 1992). 이 때의 상호텍스트성이란 많은 경우에 정보와 정보가 전자적 링크를 통해서 기계적으로 연결된 물리적 특질을 지칭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수의 문서들이 하이퍼텍스트 구조 안에서 전자적으로 연결되어 있다하더라도, 그 연결성이 내포하는 물리적 구조가 반드시 의미론적으로 밀착 관계를 갖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호텍스트성 또는 상호텍스트적 의미는 하이퍼텍스트를 읽는 독자의 마음 안에서 형성된다고 보는 편이 옳다. 다양한 문서들을 선택하여 읽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 정보들 사이의 의미적 연관성을 탐험하고 구축하는 과정이 상호텍스트적인 읽기인 것이다. 더욱이 인터넷을 통해서 앓은 자리에서 보다 빠르고 손쉽게 다양한 자료들에 접근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터넷 독서 환경은 독자들 — 정보의 선택과 이해를 통해서 글 읽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능동적 독자들 — 에게 상당한 정도의 상호텍스트적 독서를 요구한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독서 환경이 갖는 특징 중 하나는, 이 전자 공간상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신뢰성이나 유용성을 반드시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보다 손쉽게 정보를 창안하고 생성하고 소통할 수 있게 돕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보급 덕택에, 인터넷에서는 누구나 쉽게 저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인터넷 저자들의 신뢰성과 전문성의 정도가 천차만별일 것이고, 그들이 정보를 소통하고 공유하는 의도와 목적, 그리고 절차 또한 각양각색일 것이다. 이 점에서 인터넷은 언제나 상호보완적인 정보만이 배열된 공간이 아니라, 각각의 정보들이 서로 경쟁하고 충돌하는 공간이

라고 볼 수 있다. 이 공간에서는 저자들의 신뢰성과 전문성의 정도를 담보하기 어렵고, 또한 이를 실제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독자는 정보의 소통과 공유의 과정에서 함의된, 정보와 정보 사이에 또는 저자와 저자 사이에 존재하는 관점의 상이함과 이해관계의 충돌을 비판적으로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특정 정보에 접속하여 그것을 선택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독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이유이다. 갈수록 상업화되어 가고 있는 인터넷 환경을 감안해 볼 때, 이러한 비판적 독서는 인터넷 독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Bruce, 2001 ; Fabos, 2009).

Ⅲ. 인쇄 글 독서와 인터넷 독서의 관계

인터넷 독서 환경이 상당한 정도로 인쇄 매체 환경과 구별된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인쇄 글 읽기와 인터넷에서의 글 읽기의 인지적 과정이 과연 동일한지 아닌지에 관해서는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관한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인터넷 독서가 인쇄 글 독서와 구별되는 매우 새로운 전략들을 요구한다는 관점이며, 다른 하나는 인터넷 독서와 인쇄 글 독서의 유사성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인터넷 독서에서 증대되는 복잡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Donald Leu와 그의 동료들은 인터넷 독서가 전통적 독서와 변별되는 독서 전략을 요구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크게 두 가지 자료에 근거한다. 첫째, 이 연구자들은 인쇄 글 독서 능력이 뛰어난 중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다섯 가지 핵심 인터넷 독서 전략을 찾았다고 보고한다(Leu, Coiro, Kinzer, & Cammack, 2004). 이 전략들은 크게 문제의 생성과 발견, 정보의 수집, 정보의 평가, 정보의 분석과 종합, 그리고 정보의 공유를 말한다. 이 다섯 가지 전략이 인터넷 독서의 핵심이며, 기존의 인쇄 글 읽기와 대비되는 매우 특징적인 전략이라는 것이다. 둘째, 이 연구

자들은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인터넷 독서 과제와 인쇄 글 읽기 과제의 수행 결과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한다(Leu et al, 2008). 두 가지 독서 현상 간의 상관관계가 크다면, 인쇄 글 읽기를 잘 하는 독자가 인터넷 독서도 잘 해야 하며 반대로 인쇄 글 읽기에 부족한 독자는 인터넷 독서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높아야 하는데, 자신들의 연구 결과는 이 가설에 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은 인쇄 글 읽기와는 매우 상이한 독서 능력을 요구한다는 주장이다.

Leu와 동료들의 작업은 독서 연구 분야에서 인터넷 독서 환경, 독서 과정, 독서 전략에 관한 중요성을 환기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과 근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또한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이들이 주장하는 다섯 가지 핵심 인터넷 독서 전략은 사실 많은 유능한 독자들이 인쇄 글을 읽을 때 사용하는 주요 전략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인쇄 글 독자도 인터넷 독자와 마찬가지로 독서의 목적과 탐구하고자 하는 질문을 염두에 두고, 관련 정보를 찾아서, 분석하고, 평가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연구자들은 인터넷 독서 전략의 유형을 제시하긴 하였지만, 개별 전략들 사이에 어떠한 유기적 관련성이 있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독자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 다섯 가지 전략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는지, 어떻게 이러한 독서 전략들을 초인지적(metacognitive)으로 통제하고 조절하는지에 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 더욱이 이들의 상관관계 연구는 인쇄 글 독서 능력의 지표로 선다형 표준화 검사 결과를 사용하였고 인터넷 독서 능력의 지표로 연구자들이 개발한 개방형 고차원적 문제해결 과제의 수행 평가 결과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매체 — 인쇄 글인지 인터넷 글인지 — 뿐만 아니라 과제의 성격과 자료, 평가 방식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지표를 직접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인터넷 독서 현상의 이론적 근거가 빈약한데, 이는 지금까지 수행되어 온 독서 연구 — 많은 경우 인쇄 글 읽기에 관한 — 성과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자들은 인터넷 환경 그 자체의 상이성과 그러한 환경에서 요구되는 인지 과정의 상이성을 혼동하여 논의

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인터넷 독서와 인쇄 글 독서가 상당부분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인터넷 환경이 지니는 정보 표상의 복잡성이 독서 과정상의 복잡성에 관련된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가령, Coiro는 12명의 학생 독자를 대상으로 사고 구술 연구를 통해서 인터넷 독서 과제가 매우 복잡한 인지적 독서 전략의 사용을 요구한다고 제안하였다(Coiro & Dobler, 2007). 인터넷에서 글을 읽을 때에 독자들은 매우 빈번하게 전향적 추론(forward inferences), 즉 예측하기 전략을 사용한다. 이 예측 전략은 매우 다층적으로 수행되는데, 예컨대 특정 링크를 선택하기 전에 이 링크에 연결된 정보가 무엇일지 예상하고 또한 그 정보가 유용할지 아닐지에 대해서도 미리 판단하는 것이다. 인터넷 독서는 또한 초인지적 독서 전략의 매우 민첩한 사용을 요구한다. 정보를 검색하고 선택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독자는 순간순간 자신의 독서 행위를 점검하고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Coiro는 다양한 독서 변인들의 인터넷 독서 수행 결과의 설명 정도를 연구한 후속 연구에서, 인쇄 글 독서 능력이 독자의 사전 지식(prior knowledge) 다음으로 가장 크게 인터넷 독서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점을 밝혔다(Coiro, 2012).

Coiro의 연구를 폭넓게 해석할 때, 연구 결과가 상황주의적 관점(situative perspectives)을 강조하는 최근의 인지 과학의 동향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정보처리이론 등의 과거 인지 이론들은 인지 과정의 절차적 세밀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상황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인지 작용은 그 인지 작용의 주체인 인간이 특정 과제를 수행하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Gee, 2001 ; Greeno, 1987 ; Pellegrino, Chudowsky, & Glaser, 2001). 마찬가지로, 독서의 인지 전략은 독자가 글, 매체, 과제, 목적 등의 제 요인들에 매우 복잡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유능한 독자는 변화하는 독서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독서 전략을 사용할 것이며, 그렇지 못한 독자들은 판에 박힌 기본 전략들을 특정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 적용할 것이다. 능동적 인터넷 독자는 복잡한 정보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정보를 선택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복수의 전략들을 유기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상황주의적 관점은 인터넷 독서와 인쇄 글 독서 과정의 관계를 설명할 때에 여러 모로 도움이 된다. 첫째, 상황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에 독서 전략의 사용 과정은 그 독서가 수행되는 환경 안에 맥락화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새로운 환경이 완전히 새로운 인지적 과정을 요구한다기보다는, 그러한 새로운 환경에 맞게 다양한 인지 전략들이 차별적인 역할과 중요도를 가지고 사용되는 것이다. Coiro and Dobler(2007)의 연구가 보여주듯, 예측 전략과 초인지 전략은 인터넷 환경에서 특히 그 쓰임이 증대되는 인지 과정일 것이다. 둘째, 상황주의적 관점은 인터넷 독서 과정의 유연성과 역동성을 설명하는 데에 유용하다. 인터넷 독서에서 독자는 변화된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다양한 독서 전략을 보다 복잡하게, 보다 민첩하게, 보다 정교한 방식으로 사용할 것이다. 링크 없는 문서 파일을 읽을 때의 독서 전략은 인쇄 글 독서의 전략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나, 광대한 정보 공간에서 과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평가할 때에는 보다 정교한 방식으로 자기 점검 전략과 평가 전략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황주의적 관점은, 인터넷 독서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독서에 관한 연구와 새로운 독서 현상에 관한 연구 간의 연계와 통합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새로워 보이는 독서 현상을 완전히 새로운 이론적 틀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그간의 누적된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창의적으로 재구성된 틀로 그 새로움을 분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IV. 인터넷 환경에서의 구성적-반응적 독서 전략

독서를 바라보는 상황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과거와 현재의 연구 성과를 연계하고 통합하여 제안된 ‘구성적-반응적 독서(constructively responsive reading)’ 모형은 인터넷 독서 전략의 유형과 양상을 설명하는 데에 유용하다. 이 모형은 원래 Pressley and Afflerbach(1995)이 독서 전략에

관한 경험적 연구 결과들을 분석하고 종합하여 처음으로 제안하였다. 이들은 구두보고분석(verbal protocol analysis) 방법론, 또는 사고 구술(think aloud) 기법을 사용하여 독서 과정을 연구한 지난 수십 년간의 연구물을 종합함으로써, 전문가적 독서(expert reading)의 특징을 구성적이고 반응적인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여기서 구성적이라 함은, 독자가 의미 구성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매우 건설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독서 과정을 제어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반응적이라 함은, 능숙한 독자가 텍스트의 특질들(글의 주제, 내용, 양식, 구조, 표현 등)과 글의 목적(애초의 글 읽기 목적과 더불어 독서 과정에서 생성되는 목적 등), 그리고 독서 상황(잘 모르는 구절이 나올 때, 독해에 어려움을 겪을 때, 미심쩍은 내용에 대하여 더 공부해야 필요를 느낄 때 등)에 매우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의미를 구성해 감을 의미한다.

Pressley and Afflerbach(1995)는 전문가 독자가 사용하는 수많은 독서 전략들을 확인하였는데, 이를 크게 ‘텍스트의 이해와 학습(identifying and learning text content)’, ‘독서 과정의 점검과 조절(monitring)’, ‘텍스트에 대한 평가(evaluating)’라는 세 가지 주요 범주로 분류하였다. 예컨대, 능숙한 독자는 글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사전 지식을 사용하기도 하고, 암시적 의미를 추론하기도 하며, 개별 글 정보를 통합하여 하나의 의미를 구성하기도 한다(텍스트의 이해와 학습). 이 과정에서 독자는 자신의 의미 구성 과정을 점검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 다양한 문제 해결 전략을 동원하여 독서의 효과성을 꾀한다(독서 과정의 점검). 능숙한 독자는 자신이 읽은 텍스트의 가치를 타당성, 유용성, 신뢰성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판단하고 그 의미를 부여한다(텍스트에 대한 평가).

Pressley and Afflerbach(1995)의 작업이 성숙한 독자들의 다양한 독서 전략 양상을 매우 정치치게 설명하였지만, 동시에 이들이 검토한 연구들 대부분이 독서 과제를 ‘한 편의 인쇄 글 읽기’로 설정하고 있었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Afflerbach and Cho(2009)는 1995년 이후에 출판된 다양한 독서 과제를 사용한 독서 연구들을 분석 종합하고 ‘다문서 읽기’와 ‘디지털 텍스트 읽기’의 전략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이들은 인터넷 독서가 Pressley and Afflerbach가 제안한 세 가지 대범주

에 더하여, 글 읽기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를 예상하고 찾고 접근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전략들이 수반됨을 제안하였다. 이들은 이에 해당하는 독서 전략들을 ‘잠재적 텍스트의 실현과 구축(realizing and constructing potential texts to read)’이라는 대범주로 분류하였다. 많은 경우에 인터넷 독자들은 광대한 개방형 하이퍼텍스트 공간에서 무엇을 읽을지, 어떤 정보를 찾을지 고민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반응으로서 체계적으로 인터넷 검색 엔진을 사용하고 비판적으로 링크를 선택하기 위한 전략들을 사용하게 된다.

잠재적으로 유용한 텍스트를 실현하고 구축하기 위한 독서 전략들이 반드시 인터넷 상황에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비록 드물기는 하지만, 인쇄 글 독서 연구 중에서도 이와 유사한 전략들에 대하여 조사한 사례들이 있다. 가령, Guthrie와 Mosenthal(1987)은 독자가 인쇄 문서에서 특정 정보를 찾아 읽는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문서 문식 능력(document literacy)’으로 설명하였다. 즉, 글을 읽는다는 것은 정보의 검색과 정보의 이해가 조화롭게 작용하는 과정인 것이다. 또한, 글 읽기의 상호텍스트성에 초점을 둔 연구들은 다중 문서 간의 연결 고리를 찾고 독서의 순서를 결정하는 전략들을 매우 정확하게 설명하고 예측하였다(Braten & Stromso, 2003 ; Hartman, 1995). Hartman(1995)의 연구에서는, 하나 이상의 문서를 읽는 독자들은 각 문서들 간의 연결 관계를 고려하면서 글을 읽는데 이러한 복잡성을 ‘의미의 구성(construction)과 재구성(reconstruction)’의 과정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다. 물리적으로 관련 없는 복수의 글에서 의미적 연결 고리를 찾아 관련짓고, 독자의 마음속에 이를 하나의 통합된 의미로 구축하는 과정에 주목한 것이다.

그러나 앞선 장에서 인터넷 독서 환경의 특징과 독서 능력에 대하여 설명하였듯, 복잡하고 광대한 인터넷 하이퍼텍스트 구조 안에서는 자신의 독서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를 검색하고 선택하는 일의 중요성과 복잡성이 증대된다. 따라서 ‘잠재적 텍스트의 실현과 구축’을 위한 전략들이 인쇄 글 독서의 그것들과 완전히 구별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인터넷 하이퍼텍스트 공간에서는 상당한 정도로 이러한 전략들의 사용 빈도가 증가하고 그 역할 또한 부각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부류의 전략들이 기존의 인

왜 독서에서 크게 요구되었던 의미 구성 전략, 자기점검 전략, 텍스트 평가 전략과 함께 유기적으로 사용될 때, 성공적인 인터넷 독서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인터넷 독자는 효과적인 독서, 성공적인 의미 구성을 위해서 적어도 구성적-반응적 독서 모형이 제안하는 네 가지 대범주의 전략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V. 청소년 독자의 구성적-반응적 인터넷 독서 전략 사용

그렇다면 과연 청소년 독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 읽을까? 청소년 독자들은 구성적-반응적 독서 모형이 제안하는 인터넷 독서의 네 가지 핵심 전략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까?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앞으로 더 설명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을 염두에 두고 필자는 다음과 같은 문헌 연구를 수행하였다.

필자는 세 가지 연구 선정의 원칙을 설정하였다.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의 범위를 (1)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을 통한 경험적 연구물로서, (2) 인터넷을 사용하여 글을 읽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3)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인터넷 독서에 수반하는 제 과정과 전략을 분석한 연구물로 제한하였다. 이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를 수집하기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의 온라인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학술 정보 데이터베이스와 구글스칼라(Google Scholar)를 사용하였다. 검색 결과 총 14편의 관련 연구를 수집하였고 이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Bilal, 2000, 2001, 2002 ; Brem, Russell, & Weems, 2001 ; Coiro & Dobler, 2007 ; Damico & Baildon, 2007a, 2007b ; Fidel et al., 1999 ; Guinee, Eagleton, & Hall, 2003 ; Hoffman, Wu, Krajcik, & Soloway, 2003 ; Kiili, Laurinen, & Marttunen, 2008, Lazonder, Biemans, & Wopereis, 2000 ; Leu et al., 2008 ; Wilder & Dressman, 2006).

먼저 선정된 연구를 연구 대상자, 과제 종류, 자료의 수집 방법, 그

리고 주요 결과 등의 기준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들은 각기 다양한 독서 과제(가령, 주어진 질문에 답하기 위한 사실적 정보 찾기에서 자신이 주제를 선택하고 이에 관련된 정보를 찾아 공부하는 과제에 이르기 까지)와 다양한 연구 방법(사고 구술 기법, 관찰과 면담 조사, 컴퓨터 화면 녹화 기술, 컴퓨터 로크 파일 분석 등)을 동원하여 인터넷 환경에서의 청소년 독자의 독서 과정을 조사하였다. 이어서, 이러한 선행 분석에 근거한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인터넷 독서 전략과 과정에 관한 이해를 도모하는 데에 유의미한 정보들을 취사선택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의 전체 과정에 걸쳐서 앞 장에서 기술한 인터넷 환경에서의 구성적-반응적 독서 전략 사용 모형을 사용하였다. 그리하여 각각의 연구 결과들이 이 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독서 전략의 네 가지 대범주 즉, (1) 잠재적 텍스트의 실현과 구축, (2) 텍스트의 이해와 학습, (3) 독서 과정의 점검, 그리고 (4) 텍스트의 평가를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정리하였다. 아울러 각각의 범주에 대한 설명 마지막에 청소년 독서 전략 사용에 대하여 중요하게 염두에 두어야 할 점들에 대한 해석을 덧붙였다.

1. 잠재적 텍스트의 실현과 구축

분석한 연구들의 결과를 볼 때, 공통적으로 ‘어떤 텍스트를 선택하고 읽은 것인가’의 문제가 효과적인 인터넷 독서를 설명하는 데에 매우 중요함을 추론할 수 있었다. 인쇄된 글을 읽을 때에 독자들은 대체로 저자가 정해놓은 순서 즉 글자, 단어, 문장, 단락, 절과 장의 순서에 따라 배열된 정보를 읽고 이해한다. 물론, 독서라는 것이 늘 상황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쇄 매체 환경에서도 때로는 독자 나름의 순서로 글을 읽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글을 읽기 보다는, 필요하지 않은 정보는 건너뛰고 필요한 정보를 찾고 이해하는 것에 집중하기도 한다. 또한 글의 본문에 더하여 차례, 각주, 색인 등을 오가면서 정보를 상호 관련지어 읽기도 한다. 그러나 인쇄 글 읽기의 경우에 독자가 자신의 ‘독서 순

서(the order of reading)’를 결정할 수 있는 범위와 가능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반면에 텍스트의 범위가 구속되지 않는 인터넷 환경에서 독자들은 미지의 공간에서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쓸모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 다양한 텍스트를 탐험할 수 있다. 물론, 매 순간의 모든 인터넷 독서가 이러한 과정을 수반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링크가 전혀 없는 피디에프 문서를 읽는 것 그 자체는 텍스트의 실현과 구축이라는 전략을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보다 개방된 인터넷 문맥에서 독자는 미지의 텍스트를 찾고, 선택하고, 이해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인터넷 공간에서 독자는 어디에 내가 찾고자 하는 텍스트가 위치해 있을지, 어떤 순서로 그러한 텍스트들을 발견하고 선택하고 이해해야 할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독서의 순서는 독서가 종결되는 순간까지 완전하게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독자는 많은 경우에 웹 주소나 링크의 제목 등 최소한의 가용한 정보만을 바탕으로 하여 자신의 독서 순서를 계획하고, 판단하고, 결정한다. 링크와 텍스트를 선택하기 전과 후에, 독자는 반드시 관련성, 신뢰성, 유용성 등의 정보 판단 기준을 비판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인터넷의 ‘불확정성’과 ‘가능성’의 양면적 특성으로 인해, 인터넷 독서는 잠재적으로 유용할 것이라 예측, 판단되는 텍스트를 ‘나의 텍스트’로 실현시키고 구축하는 전략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된다.

잠재적 텍스트를 실현하고 구축하는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정보 검색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분석한 거의 모든 연구들이 효과적인 정보 검색 전략의 중요성을 보고하고 있다. 가령, Leu와 동료들은(2007) 비교적 숙달된 독서 능력을 지닌 7학년 학생들의 인터넷 독서 과정을 사고 구술 기법을 사용하여 연구하였다. 그리고 비판적 정보 검색 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인터넷 독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연구자들은 정보 검색과 정보 이해의 관계를 독서 능력의 해독(decoding)과 독해(comprehension)의 관계에 비유하여 설명하였다. 글자 해독의 어려움이 글 이해에 요구되는 인지적 노력의 상

당 부분을 잠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글 내용의 학습을 방해하듯이, 정보를 제대로 검색하지 못하면 정작 정보를 이해하는 데에는 인지적 주의를 기울이기 어렵기 때문에 — 또한 이해할 가치가 있는 정보 자체를 구하기 어려우므로 — 이는 결과적으로 인터넷 정보의 학습을 저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은 청소년 독자의 정보 검색 능력의 강점과 약점을 동시에 보고하였다. 연구의 대상이 된 청소년 독자들은 인터넷 검색 엔진과 키워드 검색 전략으로 원하는 인터넷 글을 찾는 데에 어느 정도는 능숙했다(Bilal, 2000 ; Coiro & Dobler, 2007 ; Damico & Baidon, 2007a ; Hoffman et al., 2003). 연속적으로 수행된 Bilal(2000, 2001, 2002)의 연구 결과에서 7학년 독자들의 경우, 비록 그들의 인터넷 독서 과정이 상당한 정도로 과제의 특성과 독자 요인에 따라 달라지긴 했지만, 대체로 주어진 질문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키워드를 생성하고 이를 검색 엔진에 적용하여 정보를 찾는 데에는 공통적으로 능숙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Coiro와 Dobler(2007) 역시 인쇄 글 독서 능력이 우수한 청소년 독자들의 경우에, 텍스트가 연결되어 있는 공간을 적절하게 예측하고 추론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연구자들은 이를 ‘다층적 추론(multi-layered inferences)’으로 명명하고, 이러한 전략이 다층적으로 수많은 정보가 링크들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텍스트의 위치를 예측하는 데에 중요한 구실을 한다고 보았다.

연구들은 또한 청소년 독자들이 잠재적으로 가치 있는 텍스트를 탐험하고 선택하는 데에 약점을 보이기도 한다고 보고하였다. 간단한 과제의 경우에 청소년들은 쉽게 검색어를 생성해 냈지만, 보다 복잡한 학문적 과제의 경우에 그 과제와 독서 목적에 부응하는 효과적인 검색어를 도출하고 창안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Fidel et al., 1999 ; Guinee et al., 2003 ; Lazonder et al., 2000 ; Wilder & Dressman, 2006). 학생들의 인터넷 검색 엔진 사용에 수반한 인지 과정을 분석한 Fidel과 동료들의 연구(1999)에서, 대부분의 청소년 독자들은 정보 검색 전략을 사전에 면밀히 계획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반작용적 정보 검색자(reactive searchers)’의 성향을 보였다. 이들은 주로 주어진 과제 질문을 있는 그대로 검색어로 사용하였으며, 검색 결과

에 따라 검색어를 정교하게 변형하여 적용하는 데에 능숙하지 못했다. 그리고 검색 과정과 검색 결과에 대한 특별한 분석이나 평가 없이 호기심에 그럴듯해 보이는 정보들을 즉흥적으로 선택하기를 반복하였다(Bilal, 2001 ; Fidel et al., 1999 ; Schacter et al., 1999).

학습에 유용한 텍스트를 탐색하고 선택하는 과정의 어려움의 원인은 몇 가지 정도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 과제 관련 지식의 부족이다. 즉, 공부하고자 하는 주제에 관한 배경 지식이 부족할 때, 관련 검색어를 생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변형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다. 주제 관련 배경 지식, 영역 지식의 부족은 정보의 탐색과 선택 자체의 기회마저 갖기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리고 관련 지식의 부족은 인터넷 독서 과정에서 생성되는 이해의 정도에도 관련된다. 찾은 정보를 바탕으로 관련 내용에 대한 이해를 구성하고 이를 다시 이차적인 정보 탐색 과정에 지식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습의 진전이 없고 이해의 정도가 멈추어 있다면 정보 탐색을 반복한다 할지라도 더욱 유용한 새로운 정보를 찾기 힘들 수 있다. 요컨대, 배경 지식과 이해의 확장의 문제는 ‘텍스트의 이해와 학습’ 전략과 긴밀히 관련된다.

둘째로, 잠재적으로 유용한 텍스트를 찾고 선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내가 무엇을 찾아야 하고, 어떤 정보가 필요하며, 왜 그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에 기초하여, 어떤 검색 엔진을 사용할지, 어떤 검색어를 사용할지, 어떤 사이트가 잠재적으로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지, 정보를 찾고 나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마음속에 어느 정도의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즉, 현명한 독자는 정보를 검색하기 전에 자신의 읽의 정도, 독서의 과제, 독서의 목적, 예상되는 독서의 과정 등에 대하여 초인지적으로 분석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독자는 인터넷 그 자체에 자신의 정보 검색 과정을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이는 인터넷 독서의 ‘자기 점검’ 전략과 관련된다.

셋째로, 인터넷 환경에 대한 인식론적 이해의 미숙함에서 오는 어려움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인터넷의 정보가 언제나 믿을만한 것이며 인터넷

이 언제나 정보를 잘 조직적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자신의 공부에 항상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독자들은, 손에 쥔 정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무조건 수용함으로써 보다 심화된 정보 탐색 자체를 실행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인터넷의 정보가 누군가에 의해 구성된 것이고 편향되거나 왜곡된 정보일 수도 있다고 본다면, 독자는 자신이 찾은 정보가 과연 믿을 만한 것인지 나의 공부에 진실로 도움이 되는 것인지 반성하고 보다 정교한 사후 검색을 시도할 것이다. 이는 텍스트의 평가 전략과 면밀히 관련된다. 인터넷 환경의 본질에 대한 이해 즉, 실현되지는 가능성과 동시에 곳곳에 잠복하고 있는 위험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이해는 독서의 비판적 ‘텍스트 평가’ 전략의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

요컨대, 성공적인 ‘잠재적 텍스트의 실현과 구축’을 위해서는 나머지 다른 세 가지 주요 전략들의 효과적인 사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주요 네 가지 인터넷 독서 전략들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면서 의미 있는 인터넷 텍스트의 탐색, 선택,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2. 텍스트의 이해와 학습

매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텍스트로부터 의미를 구성해내는 전략은 성공적인 독서를 가능케 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인터넷 공간이 상호텍스트성의 공간임을 주지할 때, 인터넷 독서에서는 개별 텍스트의 내용 이해뿐만 아니라 이 공간 안에 존재하는 다수의 관련된 텍스트들 사이에 걸쳐 있는 의미를 분석하고 연결하고 종합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전략적인 독자들은 웹사이트의 구조에 관한 지식을 이용하고, 개별 텍스트들의 연결고리를 파악하면서, 상호텍스트적인 의미를 도출해 낸다. 반대로 이러한 전략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인터넷 독서를 통하여 성취하고자 하는 이해와 학습의 증진을 도모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연구에서 14편의 연구들을 검토하였는데,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어떤 방식으로 인터넷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하고 의미를 구성

하는지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조사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 검색 과정에 대한 연구가 상당한 정도로 폭넓고 깊이 있게 수행된 것과는 대비된다. 아마도 새로운 독서 환경에서의 의미 구성의 과정과 전략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이 연구자들 사이에 그다지 충분히 인식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Leu와 동료들은 인터넷 독서의 핵심 전략으로 ‘정보의 분석과 종합’이라는 능력을 제시하였으나, 정작 이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않았다. 인터넷 독서에 관한 앞으로의 연구들은, Bilal(2002)의 연구에서 그가 간접적으로 추론한 것처럼, 학생들이 정보 검색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의미의 구성 또는 텍스트의 이해라는 독서의 기본 목적을 잘 인지할 때에 보다 심화된 독서 과정에 몰입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드물기는 하지만, Hoffman, Wu, and Krajcik(2003)의 연구는 인터넷을 사용한 과학 학습 과제에서 학생들이 사용한 독서 전략들에 관하여 설명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연구자들은 중학교 학생들이 교사에 의해 미리 선정된 웹사이트와 온라인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과학 수업 시간에 탐구 학습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대다수의 학생들은 인터넷 학습 공간 안에서 관련된 과학 주제를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 장기간의 탐구 기간 학습을 거쳤음에도, 어떤 학생들의 경우에는 원래 알고 있던 내용에서 전혀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이러한 학습의 어려움을 초래한 이유 중 하나는, 학생들이 인터넷에서 과학 주제를 공부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찾는 데에 그다지 능숙하지 못했다는 점에 있다. 다시 말해 좋은 정보와 텍스트를 찾지 못하면, 자연히 좋은 자료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고, 이는 바로 학습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Hoffman과 동료들(2003)의 연구에서, 탐구 기반 과학 수업에서 비교적 높은 성취를 보인 학생들은 인터넷을 활용하여 정보를 잘 검색하고 정보의 질을 면밀히 판단하여 좋은 정보를 추리고 공부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이러한 고차원적 독서 전략에 몰입했던 학생들의 상당수가, 그렇지 않은 학생들 — 무비판적으로 웹상에 존재하는 정보들에

접근했던 —에 비하여 주어진 과학 주제에 대하여 보다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었다. 여기서 눈여겨 볼만 한 점 중에 하나는, 잠재적으로 유용한 텍스트를 탐색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추려 읽을 줄 알았던 학생 독자들은, 그다지 유용해 보이지 않는 자료라 할지라도 이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고민하는 흔적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재활용의 개념으로 비유될 수 있는데, 다시 말해 배경 지식이 많고 학습의 이해 정도가 뛰어난 전략적인 독자는 어떤 자료가 쓸모없다고 해서 무조건 버리기보다는, 학습과 독서를 통해서 쌓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하고 필요한 정보를 그 안에서 찾으려고 노력한다는 점이다.

요약하자면, 인터넷에서의 성공적인 학습은, 성공적인 정보 검색, 효과적으로 유용한 자료를 찾고 선택하는 ‘잠재적 텍스트의 실현과 구축’ 전략과 상당히 관련되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그 과정에서 정보의 관련성, 신뢰성, 타당성을 조사하는 평가 전략 또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 글에서 검토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인터넷에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상호텍스트적인 의미 구성 전략에 대하여 그리 치밀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하였다. 학생들이 어떻게 정보를 분석하고, 그러한 정보들을 종합하여 하나의 응집된 이해로 구성하는지에 대하여 각별히 주의한 연구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인터넷의 공간이 다양한 종류와 형식의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고, 이것이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자극하고, 더 나아가 학습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을 분석, 종합, 이해하는지의 과정에 대하여 반드시 면밀히 관찰하고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독서 과정의 점검과 조절

자신의 독서 과정을 수시로 점검하고 조절하는 전략 또한 성공적인 독서의 핵심이다. 인터넷의 복잡한 하이퍼텍스트 공간에서 이러한 자기점

검 및 자기조절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된다. 인터넷이 엄청난 양과 다양한 종류와 질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은 독자들에게 새로운 도전일 수밖에 없다. 인터넷 환경에서 독자는 수많은 정보를 관리하면서 동시에 이해도 해야 하는 ‘이중과제’를 감당해야 한다. 정보를 관리하는 일, 즉 링크와 자료를 찾고 접속하고 추리는 작업에 능숙하지 못하면, 일순간 복잡한 정보 공간에서 어디로 갈지, 무엇을 읽어야 할지에 대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반응하지 못함으로써 학습과 독서를 방해하는 인지적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반대로, 좋은 정보를 찾아 선택하였다 할지라도, 그 정보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공부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의미의 구성이라는 독서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듯 정보의 관리와 정보의 이해라는 이중의 과제에서 인지적 주의를 적절히 배분할 때에 인터넷 독서 과정에 대한 자기 점검 전략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관련 연구들은 인터넷 독서에서의 자기 점검 전략에 관련한 문제 중 하나로 정보 공간에서의 ‘방향 상실(disorientation)’을 지적한다. Fidel과 동료들(1999)은 자신들의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매우 빈번하게 이 문제에 노출되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하이퍼텍스트 자료를 읽는 동안 학생들은 종종 “여기서 어디로 가야하지?”, “무얼 클릭해야 하지?”와 같은 질문을 하곤 했다. 이 상황에 처한 학생들은 정보 탐색과 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들의 질문은 일정 정도 그들 자신의 독서 문제에 관한 초인지적 인식(perception)의 정도를 반영하는 것이나, 그들 스스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전략을 찾지는 못하였다는 점에서 능숙하게 자기점검 전략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Fidel과 동료들(1999)의 연구에서 비교적 수월하게 과제를 수행했던 학생 독자들은 정보 공간에서 우왕좌왕하는 상황에서 빠져나오거나, 혹은 그러한 상황 자체에 처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전략들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가령, 인터넷 하이퍼텍스트에서 자신이 처음 독서를 시작했던 웹페이지를 기억하거나, 인터넷 공간을 두루 살피는 동안 눈에 띄는 특정 자료가 위치한 지점을 기억함으로써,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지점으로 되돌아가는 전략을 수행하였다. 이는 마치 낯선 곳을

여행할 때에 멀리서 보고도 위치를 파악할 때에 도움이 되는 랜드마크를 기억하거나 일종의 안전구역을 설정하여 길을 잃는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에 비유될 수 있다.

인터넷 독서 점검 전략의 사용은 자기반성(self-reflection) 또는 자기통제(self-control) 과정을 수반하기 마련이다. 중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인터넷 검색 및 독해 과정을 연구한 Coiro and Dobler(2007)는, 인터넷 독자가 빈번하게 전향적 추론(forward inferences), 즉 예측하기 전략을 사용할 때에 이러한 자기반성적, 자기통제적 독서 행위가 독서 효과성 증진에 핵심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들은 독서 능력이 어느 정도 배양되어 있는 능숙한 청소년 독자들의 경우에, 여러 절차로 이루어진 자기 통제적 독서 과정을 매우 민첩하게 수행함을 관찰하였다. 이들은 링크를 선택하기 전에 연결된 정보를 예측하고, 링크를 선택하여 정보를 읽은 후 그것에 대하여 평가하였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독서 과정이 계획한 독서 목적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기를 규칙적으로 수행하였다. 이 연구자들은 능숙한 독자가 이러한 초인지적 독서 즉, 예측, 선택, 종합, 평가, 점검이라는 복수의 전략들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조절하고 사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학습의 공간을 스스로 구축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이러한 전략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청소년 독자들은 복잡한 인터넷 공간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지 못하고 학습 방향을 상실하게 될지 모른다. 이러한 독서와 학습의 방향 상실이 반복되다 보면, 독자 스스로 자신의 독서 능력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인터넷 공간에서 자기 점검 전략의 사용과 그 성공 여부는, 짧게는 개별 독서 과제에서 학생의 성취 여부를 좌우할 뿐만 아니라, 길게는 인터넷 독서에 관한 학생의 자기효능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4. 텍스트에 대한 평가

인터넷 글의 비판적 평가는 인터넷 독서 능력을 설명할 때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셀 수 없이 많은 수의 정보 문서들을 대하게 되는데, 많은 경우 이러한 것들이 지나치게 상업적이거나 또는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질 좋은 정보들을 제공하는 다양한 웹사이트들도 많이 있지만, 어떤 경우에 이러한 웹사이트들조차도 상업적인 주체들에 의해 유지, 관리되거나, 또는 상업적 광고주들에 의해 재정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상업적 사이트들은 때로는 교묘하게 그 의도를 이면에 감춘 채 인터넷 독자를 유혹한다. 일반 개인들에 의해 생산, 관리되는 정보 역시, 그러한 정보의 신뢰성을 뒷받침해줄 만한 전문성과 권위를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어떤 경우에라도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누가 어떤 의도로 특정 글을 창안하고 재조직하여 특정의 방식으로 소통하는지에 대한 근거 자체를 분명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글을 읽을 때에는 정보 그 자체의 타당성과 신뢰성뿐만 아니라, 그 글을 창안하고 조직하여 유통하는 이들의 신뢰성과 전문성의 여부도 가용한 정보를 사용하여 예측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Leu와 동료들(2007)의 연구는 청소년 독자들의 인터넷 정보에 대한 비판적 인식 능력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음을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이 연구자들은 참여 중학생들에게 ‘태평양 북서부 지역의 나무 문어를 구하라’라는 제목의 웹사이트를 읽게 하였다(Save the Pacific Northwest Tree Octopus, <http://zapatopi.net/treeoctopus>). 이 사이트는 언뜻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은 그 신뢰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가짜’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연구에 참여한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 사이트가 믿을 만하다고 보고하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전 인터뷰에서는 인터넷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대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글을 읽을 때에는 사이트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할 만한 적절한 정보들을 구하는 데에 실패하였다. 이 학생들은 사이트의 이곳저곳을 뒤적인 뒤에 이 사이트가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믿을 만하다고 평가하거나, 사이트의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복사하고 붙여 넣음으로써 주어진 과제를 마무리 하려 하였다.

Leu의 연구에서 청소년 독자들은 사이트 주인에 대한 정보, 명성, 전

문성, 사이트의 주소, 연락처, 사이트에 게재된 참고 자료들과 같은 정보 들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 표지(surface markers) 들에 주의를 쏟는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터넷 자료의 질을 평가하기 에는 충분하지 않다. 보다 중요한 능력은 인터넷 텍스트의 내용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타당성과 신뢰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나 분석한 연구들이 보고하듯, 청소년 독자들은 깊이 있는 비판적 독서 전략 을 사용하는 데에 그다지 능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중학생들의 인터넷 자료를 통한 과학 수업 과정을 분석한 Brem, Russel, and Weems(2001)은 이러한 무비판적 독서가 인터넷에서 정보가 출판되는 과정과 체계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부족에 기인한다고 해석하였다. 즉 인터넷의 기사, 블로그 포스트 등의 각종 의견을 담은 글들이 누구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 지는지, 이 과정에서 어떤 저자나 정보에 대한 심의 과정이 존재하는지, 또는 서로 다른 양식의 인터넷 글들이 어떻게 각기 다른 수준의 신뢰성을 내포하는지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다. 가령, 신문사 사이트를 통해 배포되 는 기사 글은 일반 개인의 블로그 포스트보다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을 것이지만, 각 신문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의 정도가 다르고 또 신문사 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한 기사의 방향과 논조가 다르다는 점에서 기사 내용 그 자체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또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매체와 정보 소통 방식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Damico and Baildon(2007a ; 2007b)는 소수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인터넷에서 수집한 여러 가지 문서를 읽을 때에 어떻게 비판적 관점을 견지하고 사고하는지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 은 사실적 정보를 검색하고, 사이트의 주인을 확인하며, 정보가 얼마나 최근에 생성된 것인지 판단하는 일에는 능숙하였다. 정보의 평가와 관련하여 이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 예를 들어 신문사 사이트는 믿을 만 하다거나 반복적으로 출현하는 정보는 신뢰할 수 있다거나, 혹은 글 내용 이 저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때문에 타당하다는 등의 텍스트 평가 능력 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글의 이면, 사이트가 제시하는 정보 이면에 숨어

있는 가정, 관점, 의도와 같은 기저텍스트(subtext)에 관해서는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현재 읽고 있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의 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거를 추가로 찾아 분석하거나, 이와는 다른 관점을 견지하는 상이한 글을 찾아 읽는 전략도 보여주지 못했다.

요약하자면, 분석한 연구들에서 청소년 독자들은 대체로 비판적 독서 능력에 약점을 보였다. 비교적 독서 능력이 능숙한 학생들의 경우에도, 표피적 정보를 사용하여 인터넷 글의 신뢰성이나 타당성을 평가하기는 하였지만, 그 이면에 의도된 저자의 관점이나 가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고민하지 못했다. 동일한 사건이나 현상을 해석하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고, 관련하여 다양한 논증들이 전개될 수 있음에도, 청소년 독자들은 폭넓고 다양하게 글을 찾아 읽는 것에는 그다지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는 듯 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렇듯 다소 편협해 보일 수 있는 글 읽기는, 독서라는 행위, 텍스트라는 실체, 인터넷이라는 환경을 바라보는 학생들의 관점과 관련되는 것으로, 지식과 앎의 과정에 대한 단편적 시각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한 수준의 인식론적 이해를 가진 독자는, 지식이란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이며, 세상에는 하나의 정확한 답이 존재하고, 텍스트란 그러한 객관적 지식을 잘 정리해 놓은 것이고, 독서란 그로부터 지식을 찾아 받아들이는 것이라 볼 것이다. 반면에, 보다 복잡한 수준의 인식론적 이해를 형성한 독자는, 지식이란 구성되는 것이며, 세상에는 동일한 사물과 사건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하며, 텍스트란 특정인의 특정 관점을 반영하는 의미적 구성체이고,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함으로써 나의 관점과 지식을 형성하는 일이 독서라 볼 것이다. 모든 독서에서 이러한 복잡한 인식론적 이해가 요구될 것이되, 확인되지 않은 불확정성의 공간인 인터넷에서 비판적 독서를 하기위해서는 그 역할이 특히나 중요하다고 하겠다.

VI. 시사점 및 결론

인터넷 중심의 디지털 매체 환경에서 글을 찾고, 선택하고, 이해하는 능력은 현대 사회의 구성원 누구에게나 요구되고 또 필요하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언어 교육 정책과 교육 환경 역시 학생들이 이러한 21세기 독서 능력을 갖추 수 있는 방향으로 그 강조점을 전환하고 있다. 비판적 디지털 독서 능력을 통합한 미국의 국가공동핵심교육과정(Common Core State Standards)이나 전자 텍스트의 검색 및 이해 능력을 주요 독서 문식 능력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PISA 또는 PIRLS와 같은 국제학업성취도평가 등이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다. 이 글은 21세기 독서 능력 중에서 ‘인터넷 독서 전략’의 본질, 특징, 범주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청소년 독자들의 독서 전략 사용 양상을 조사한 연구들을 종합하면서 그 결과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였다.

앞서 설명한 문헌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볼 때, 독서의 구성적—반응적 독서 모형이 제안하는 네 가지 독서 전략—잠재적 텍스트의 실현과 구축, 텍스트의 이해와 학습, 독서 과정의 점검, 텍스트의 평가—은 인터넷 독서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다(Afflerbach & Cho, 2009). 분석한 연구들에서 청소년들은 주어진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보를 검색하는 데에는 능숙하였다. 그러나 폭넓고 깊이 있게 자료를 탐색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기술된 여러 종류의 정보들을 읽으면서 각각의 자료들이 지닌 정보의 가치와 신뢰성과 타당성을 판단하고, 종합된 자료들을 상호 관련지으며 읽는 비판적 독서 능력을 사용하는 데에는 그다지 능숙하지 않았다. 학생들이 적어도 이 네 가지 독서 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 인터넷 공간에서 독서를 통한 보다 증진된 이해와 학습을 도모할 수 있다. 교육적 함의를 따져 보자면, 국어 수업에서 학생들이 적어도 이 네 가지 독서 전략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인터넷 독서 전략에 대한 이해와 교육은 통합적으

로 도모될 필요가 있다. 사실, 능숙한 인터넷 독자는 이 네 가지 전략을 개별적으로 정해진 순서에 의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상황에 맞게 이들을 유기적인 방식으로 조화롭게 사용함으로써 독서의 효과성을 극대화한다. 그리고 각각의 주요 독서 전략들 사이의 조율과 통합은 인터넷 독서의 복잡성을 설명하는 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따라서 인터넷 독서 전략의 증진을 도모하는 독서 수업은, 학생들이 이러한 전략들을 기계적으로 학습하고 분절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서 멈추기 보다는, 이 네 가지 전략을 언제 어떤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강조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차례 이 글에서 언급된 것처럼, 이 네 가지 독서 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핵심은 바로 학생들의 초인지적 독서 능력에 있다(Azevedo, Cromley, & Guthrie, 2004 ; Baker & Brown, 1994). 자신의 독서 과정을 정확하고 민첩하게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을 때에 보다 효과적인 독서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교육의 행위를 염두에 둘 때 학생들의 초인지 능력을 신장시키는 일은 그리 쉽지 않은 과제이다. 보다 실제적인 독서 과제와 상황을 준비하고, 학생들이 이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사가 전문가적 입장에서 전략 사용의 과정을 시범 보이고, 학생들이 과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전략들을 반성적, 비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독서 과정과 전략에 관하여 아직 많은 것들을 더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외 관련 문헌을 두루 검토한 이 논문에서 국내 연구 논문의 수가 극히 적음을 감안한다면, 한국의 독자, 한국의 학생, 한국의 인터넷 환경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인터넷 독서 과정의 본질과 다양한 양상, 그리고 어떻게 한국의 청소년 독자들이 인터넷 독서를 경험하는지에 관한 넓고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터넷 독서에 관한 몇 가지 미래 연구 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 한국의 청소년들이 인터넷 상황에서 이 네 가지 구성적-반응적 독

서 전략을 사용하는 방식 : 한국의 청소년들은 인터넷 독서에서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어려워하는가? 능숙한 독자와 그렇지 못한 독자의 인터넷 독서가 어떻게 같고 다른가?

- 각각의 전략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총체적으로 인터넷 환경에서의 독서의 성공에 미치는 영향 : 인터넷 독서의 성공을 좌우하는 중핵 전략은 무엇인가? 복수의 독서 전략 사이의 계기적 연관성이 어떻게 성공적인 독서에 기여하는가?
- 인터넷에 관한 인식론적 이해, 배경 지식, 독서 전략 사용 간의 관계 : 인터넷에 대하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이해, 태도가 독서의 과정과 결과에 어떤 관련을 맺는가?
- 인쇄 글 독서 능력과 인터넷 글 독서 능력 간의 상관관계와 영향 관계 : 매체 환경이 독서 과정과 관련 능력의 사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이고, 그 복잡성의 정도는 어떻게 다른가?
- 인쇄 글 독서와 인터넷 글 독서의 통합적 영역에 관한 분석 : 실생활에서 그리고 학교 공부에서 인터넷 독서와 인쇄 글 독서가 어떤 방식으로 관련을 맺는가? 이 두 가지 형식의 독서가 학생의 독서 및 학습 발달에 기여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학생들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 두 가지 형식의 독서를 통합하는가?*

* 본 논문은 2012. 6. 15. 투고되었으며, 2012. 7. 9. 심사가 시작되어 2012. 7. 31.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권순희(2003). “하이퍼텍스트를 통한 읽기 교육 개념의 재설정”, 『국어교육학연구』 16권, 39-65, 국어교육학회.
- 김요한(2004). “텍스트에서 하이퍼텍스트로”, 『텍스트언어학』, 16집, 179-203, 한국텍스트언어학회.
- 나일주, 진성희(2008). “인쇄텍스트와 온라인텍스트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 『교육정보미디어연구』 제14권 제2호, 213-235.
- 노병성(2008). “아날로그와 디지털 텍스트의 독서 패러다임에 관한 고찰”, 『한국출판학연구』 제34권 제1호, 151-188, 한국출판학회.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2011). 『2011 한국인터넷백서』. <http://isis.nida.or.kr/ebook/2011/whitepaper/>에서 출력 가능.
- 배식한(2000). 『인터넷, 하이퍼텍스트 그리고 책의 종말』, 서울: 책세상.
- 조병영(2007). “인터넷 환경에서의 초인지적 독서 전략-사고 기술 연구로부터의 증거들”, 『국어교육』 124권, 281-316. 한국국어교육학회.
- Afflerbach, P., & Cho, B-Y.(2009). Identifying and describing constructively responsive comprehension strategies in new and traditional forms of reading. In S. E. Israel & G. G. Duffy (Eds.), *Handbook of research on reading comprehension* (pp. 69-90). London : Routledge.
- Alexander, P. A., Kulikowich, J. M., & Jetton, T. L. (1994). The role of subject matter knowledge and interest in the processing of linear and nonlinear text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64, 201-251.
- Alvermann, D. E. (2001). *Effective literacy instruction for adolescents*. Paper commissioned by the National Reading Conference. Retrieved November 3, 2008, from <http://www.nrconline.org/publications/alverwhite2.doc> Chicago.
- Azevedo, R., Guthrie, J. T., & Seibert, D. (2004). The role of self-regulated learning in fostering students' conceptual understanding of complex systems with hypermedia. *Journal of Educational Computing Research*, 30, 87-111.
- Baker, L., & Brown, A. L. (1984). Metacognitive skills and reading. In P. D. Pearson, R. Barr, M. L. Kamil & P. Mosenthal (Eds.), *Handbook of reading research* (pp. 353-394). New York : Longman.
- Bilal, D. (2000). Children's use of the Yahoogigans! Web search engine : I. Cognitive, physical, and affective behaviors on fact-based search task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1, 646-665.

- Bilal, D. (2001). Children's use of the Yahoo!igans! Web search engine : II. Cognitive and physical behaviors on research task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52, 118-136.
- Bilal, D. (2002). Children's use of the Yahoo!igans! Web search engine : III. Cognitive and physical behaviors on fully self-generated search task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3, 1170-1183.
- Bolter, J. (1998). Hypertext and the question of visual literacy. In D. Reinking, M., McKenna, L., Labbo, & R., Kieffer (Eds.), *Handbook of literacy and technology : Transformations in a post-typographic world* (pp. 3-13). Mahwah, NJ: Erlbaum.
- Brem, S. K., Russell, J., & Weems, L. (2001). Science on the Web : Student evaluations of scientific arguments. *Discourse Processes*, 32, 191-213.
- Bruce, B. (2000). Credibility of the Web: Why we need dialectical reading.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34, 97-109.
- Charney, D. (1987). Comprehending non-linear text : The role of discourse cues and reading strategies. *Paper presented at the Hypertext 87*, Chapel Hill, NC.
- Coiro, J., & Dobler, E. (2007). Exploring the online reading comprehension strategies used by sixth-grade skilled readers to search for and locate information on the Internet. *Reading Research Quarterly*, 42, 214-257.
- Coiro, J., Knobel, M., Lankshear, C., & Leu, D. J. (2009). Central issues in new literacies and new literacies research. In J. Coiro, M. Knobel, C. Lankshear & D. J. Leu (Eds.), *Handbook of research on new literacies* (pp. 1-21). New York : Erlbaum.
- Damico, J., & Baildon, M. (2007a). Examining ways readers engage with websites during think-aloud sessions. *Journal of Adolescent & Adult Literacy*, 51, 254-263.
- Damico, J., & Baildon, M. (2007b). Reading Web sites in an inquiry-based social studies classroom. *Yearbook of the National Reading Conference*, 56, 204-217.
- Fabos, B. (2008). The price of information. In J. Coiro, M. Knobel, C. Lankshear & D. J. Leu (Eds.), *Handbook of research on new literacies* (pp. 839-870). New York : Erlbaum.
- Fidel, R., Davies, R. K., Douglass, M. H., Holder, J. K., Hopkins, C. J., Kushner, E. J., et al. (1999). A visit to the information mall : Web searching behavior of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50, 24-37.
- Gee, J. P. (2001). Reading as situated language : A sociocognitive perspective. *Journal of*

Adolescent & Adult Literacy, 44, 714-725.

- Guinee, K., Eagleton, M. B., & Hall, T. E. (2003). Adolescents' Internet search strategies: Drawing upon familiar cognitive paradigms when accessing electronic information sources. *Journal of Educational Computing Research* 29, 363-374.
- Guthrie, J. T. and Mosenthal, P. (1987) Literacy as multidimensional : locating information and reading comprehension. *Educational Psychologist*, 22, 279-297
- Hartman, D. K. (1995). Eight readers reading : The intertextual links of proficient readers reading multiple passages. *Reading Research Quarterly*, 30, 520-561.
- Hoffman, J. L., Wu, H.-K., Krajcik, J. S., & Soloway, E. (2003). The nature of middle school learners' science content understanding with the use of online resources.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40, 323-346.
-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2009). *PIRLS 2011 Assessment Framework*. Chestnut Hill, MA : TIMSS & PIRLS International Study Center.
- Kiili, C., Laurinen, L., & Marttunen, M. (2008). Students evaluating Internet sources: From versatile evaluators to uncritical readers. *Journal of Educational Computing Research*, 39, 75-95.
- Kress, G. (2003). *Literacy in the new media age*. London : Routledge.
- Kuiper, E., Volman, M., & Terwel, J. (2005). The Web as an information resource in K-12 education: Strategies for supporting students in searching and processing information.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75, 285-328.
- Landow, G. P. (1992). *Hypertext : The convergence of contemporary critical theory and technology*. Baltimore :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Lankshear, C., & Knobel, M. (2003). *New literacies : Changing knowledge and classroom learning*. Buckingham, UK : Open University Press.
- Leu, D. J., Kinzer, C. K., Coiro, J. L., & Cammack, D. W. (2004). Toward a theory of new literacies emerging from the Internet and othe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n R. B. Ruddell & N. J. Unrau (Eds.), *Theoretical models and processes of reading* (5th ed., pp. 1570-1613). Newark, DE :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 Leu, D. J., Zawilinski, L., Castek, J., Banerjee, M., Housand, B., Liu, Y., et al. (2008). What is new about the new literacies of online reading comprehension? In L. Rush, J. Eakle, & A. Berger, (Eds.), *Secondary school literacy : What research reveals for classroom practices* (pp. 37-68). Urbana, IL :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English.

- New London Group (1996). A pedagogy of multiliteracies : Designing social futures. *Harvard Educational Review*, 66, 60-92.
- Palfrey, J., & Gasser, U. (2008). *Born digital : Understanding the first generation of Digital Natives*. New York : Basic Books.
- Pellegrino, J., Chudowsky, N., & Glaser, R. (2001). *Knowing what students know : The science and design of educational assessment*. Washington, DC : National Academy Press.
- Pressley, M., & Afflerbach, P. (1995). *Verbal protocols of reading : The nature of constructively responsive reading*. Hillsdale, NJ : Erlbaum.
- Spiro, R. J., & Jehng, J.-C. (1990). Cognitive flexibility and hypertext : Theory and technology for the nonlinear and multidimensional travel of complex subject matter. In D. Nix & R. Spiro (Eds.), *Cognition, education, and multimedia : Exploring ideas in high technology* (pp. 163-205). Hillsdale, NJ : Erlbaum.
- Wilder, P., & Dressman, M. (2006). New literacies, enduring challenges? The influence of capital on adolescent readers' Internet practices. In D. E. Alvermann, K. A., Hinchman, D. W. Moore, S. F. Phelps, & D. R. Waff (Eds.), *Reconceptualizing the literacies in adolescents' lives* (2nd ed., pp. 205-229). Mahwah, NJ : Erlbaum.
- Yang, S. (1997). Information seeking as problem-solving using a qualitative approach to uncover the novice learners' information-seeking processes in a Perseus hypertext system.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19, 71-91.

<초록>

청소년 독자의 인터넷 독서 전략에 관한 문헌 연구

조병영

이 글은 구성적-반응적 독서 모형에 근거하여 수행된 청소년 독자들의 인터넷 독서 전략에 관한 문헌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 분석한 많은 연구들이 청소년들이 인터넷 상황에서 사용한 핵심 전략을 설명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 전략들은 (1) 잠재적 텍스트의 실현과 구축, (2) 주요 글 내용의 확인과 학습, (3) 독서 과정에 대한 점검, 그리고 (4) 텍스트의 평가로 범주화될 수 있었다. 청소년 독자들은 대체로 인터넷상에서 사실적인 정보를 검색하고, 문면적으로 글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는 능숙하였다. 그러나 복잡한 하이퍼텍스트 공간 안에서 유용한 정보를 찾아 분석하고, 정보의 질을 평가하면서, 이를 깊이 있게 학습하는 비판적 전략을 사용하는 데에는 부족함을 보였다. 이 글은 청소년들의 비판적 독서 전략, 초인지적 독서 전략의 신장을 위한 독서 교육이 요구됨을 강조하고, 한국의 인터넷 환경에서 한국의 청소년 독자들이 어떻게 글을 찾아 읽고 공부하는지, 그 과정과 전략에 관한 심화된 그리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이 분야의 연구 결과는 21세기 독자를 생각하는 효과적인 교육과정과 수업을 설계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핵심어】 독서 전략, 인터넷 독서, 청소년 독자, 비판적 독서

<Abstract>

A Review of Research on Adolescent Readers' Internet Reading Strategy Use

Cho, Byeong-young

Framed within the model of constructively responsive reading, I conducted a research synthesis to describe the strategies that adolescent readers use while reading on the Internet. In this review, a body of literature emanating from multiple areas of research contributes to descriptions of central reading strategies in Internet settings, including strategies for (1) realizing and constructing potential texts to read, (2) identifying and learning text content, (3) monitoring one's own reading processes, and (4) evaluating texts. The result indicates that adolescents bring general tendencies to the Internet reading task: They are good at collecting and finding information and also understanding literal meaning from Internet texts. However, the result also demonstrates that adolescents have weaknesses in the use of monitoring strategies when navigating toward useful information and building deeper understanding by making meaning from multiple Internet texts. Metacognitive and evaluative reading strategies are the most concerned areas of student reading in need of support. The study suggests that ongoing examinations of reading strategies in Internet contexts, especially situated in Korean literacy environments, should be conducted to build a knowledge base that can be used in the design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 for 21st century readers.

【Key words】 Reading strategy, Internet reading, adolescent readers, critical reading